

## 한류라는 馬車, 어디까지 갈 것인가?

유재기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culture | art  
중국에서 한류의 열풍이 휩쓸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되면 실증이 나게 마련이듯,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이 시작돼야 한다. 한편, TV 드라마 하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IT와 CT 강국으로서의 위상, 한층 더 성숙된 사회의 시민의식, 보다 발전된 경제대국 등 다이나믹한 한국이라는 브랜드 창출은 한류라는 마차에 반드시 답아야 할 것들이다.

한류(韓流)라는 말은 1997년 늦가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등장하여 어언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대중예술에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많은 분야로 확대되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현상하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한류의 효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 후난위성 TV(湖南衛視)에서 한국의 TV 드라마 <대장금(大長今)>이 인기를 모으면서 제2의 한류라고 운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최근 일부에서는 항한류(抗韓流) 또는 반한류(反韓流) 등의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한국 드라마의 중국진출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대중문화가 중국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 한류의 주요 형성요인

한·중 양국은 인접국으로서 수천 년 동안 많은 교류가 이어져 왔다. 한국은 일본, 베트남 등 이웃나라들과 같이 중국문화가 유입되면서 이를 다시 독창성을 지닌 한국문화로 재창출 해왔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른 점이 대단히 많다.

물론 한·중 문화의 유사성으로 생활방식, 가치관 등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분석도 있고, 한국은 전형적인 동양의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드라마에 나타난 유행과 휴머니즘, 사회 세태의 반영 및 문화적 함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동양문화 특유의

한류의 저변에는 문화교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방 교류가 아닌 쌍방 교류를 의미한다. 일방 교류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괄목할 만큼의 문화교류가 이어져왔다. 지난 10여 년간의 교류의 산물이 중국에서의 한류, 한국에서의 한풍(漢風)을 점점 확산시키고 있다.

## Culture Exchange

멋과 끝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류 인기 요인을 설명하는 인사들도 있는데, 모두가 가능한 분석이라 할 것이다.

1992년 8월 24일 수교이후 분야별 상황을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2004년 한·중 양국간 교역규모가 9백억 달러가 넘어 금년에는 1천 1백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 학생수가 4만 3천여 명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간 항공편 운항도 한국의 6개 도시와 중국의 24개 도시간 420여 편이나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교 당시 19만 9천 명의 인적교류가 지난해에는 347만 2천 명이나 되고 2005년 6월이 되면서 외국인 중국여행객 중 한국인 여행객이 제1위를 차지, 매일 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찾고 있다. 수교 이후 2004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는 1,826만 1천 명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한류와 한풍(漢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물론 TV 드라마,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 태권도, 출판, 패션, 음식, IT, 자동차, 화장품, 게임, 영화 등도 분위기를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중국인들은 당시 TV를 통해 약 7억여 명이 한국문화를 접했다고 전한다. 수교 이후 대중문화, 전통문화, 고급문화 등 다양한 한국문화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의 한국인들의 '금 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대회 시 단결

과 시민들의 성숙함, 2003년 중국에서 SARS가 확산되었을 때 타국에 비해 재중 한국인들의 동요 없는 사려 깊은 행동과 한국 측의 여러 가지 지원, 중국인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생활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웃나라로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IT 강국으로서의 한국, 한국사회의 특수성, 경제적 규모, 최근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일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문화교류로서의 한류와 한풍(漢風)

한류의 저변에는 문화교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방 교류가 아닌 쌍방 교류를 의미한다. 일방 교류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괄목할 만큼의 문화교류가 이어져왔다. 지난 10여 년간의 교류의 산물이 중국에서의 한류, 한국에서의 한풍(漢風)을 점점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초창기 한·중 양국은 정부간 교류로 시동을 걸면서 금방 민간분야의 교류가 병행 추진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문 민간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수교 이듬해인 1993년 가을, 국립

무용단이 중국문화부의 초청으로 처녀 중국공연이 이루어지면서 2003년까지 매년 양국 정부간 예술단 교류가 이어져 왔으며, 지금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예술행사에 한국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예술행사에도 중국이 참가하는 것은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백 수십 개의 양국 지방 자매결연도시간의 문화교류와 BESETO 관련 행사 등 전문 민간교류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장 원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발전 전망이 밝다.

중국 내에서 한류도 중요하지만 한국내의 한풍도 중요하다. 1905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자장면은 금년 들어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인들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한국에는 128개 대학에 중국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한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중국 관련행사가 적지 않게 소개됨으로써 요란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한풍 또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란 중국인의 전통복장 중의 하나인 치파오(旗袍) 한 벌 정도는 구입하고, <티엔미미(甜蜜蜜)> 등 중국가요 1~2곡쯤은 다 부를 수 있으며, 또한 가요가 담긴 CD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상당수 한국인들은 이미 경극(京劇)을 사랑한 나머지 관람을 끝냈다고 전해진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인접 국가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대방 국가 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우의증진을 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9월 23일자 중국의 「검찰일보(檢察日報)」는 <대장금>이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에 한류는 위협이 아니며 한류의 등장은 세계화시대의 합리적인 산물로 평가했다. 인류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의 교류도 증가되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문화가 외부로 전파되면서 세계화라는 시대에 부합했고, 한국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우수함을 가지면서 자동차·전자·패션·도서출판·화장품 등이 중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 한류라는 마차(馬車)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세계 각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의 부가가치의 중요성과 자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이미 끝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TV 드라마 하나만을 예를 들 경우, 2002년 27부 510집, 2003년에는 24부 423집, 2004년 30부 559집, 2005년 상반기 16부 269집이라는 한국 TV 드라마가 중국에 수입허가 방영되었다.

한국 트렌디 드라마가 사랑, 가족간의 사랑, 우정을 주제로 정교한 필체와 일반인의 소박한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생활 및 인류의 보편적인 애정에 대한 추구를 보여준다는 점이 중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라고 2005년 1월 14일자 「인민일보」는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신문 10월 21일자에서는 한국드라마가 계속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름다운 화면과 음악, 세련된 인물, 위트



중국언론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국문화



최근 들어 한·중간에는 문화산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문화의 유사성과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을 기초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윈-윈 전략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한류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 Win-Win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에게 강연하고 있는 유재기 참사관



있는 말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평가했다. 또한 진실성, 선함, 아름다움을 테마로 하고 있고 사극(史劇)이든 청춘드라마이든 모두 사회적 도리를 일깨워주고, 인생의 철학을 전달하며, 동양전통의 미덕과 현대사상의 적절한 조화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게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되면 싫증이 나게 마련이다.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이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 현지 전문가들의 일부 지적도 있지만 대중 예술과의 병행, 고급예술 교류확산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한국문화 창출도 시급하다. 비교적 영향력이 큰 대중예술뿐 아니라 문학, 연극 등 순수예술 분야도 포함한 한국의 다양

한 문화를 한류라는 마차에 담아 향기로운 연기를 내뿜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중국에서 널리 사랑을 받았던 해외 TV 드라마들이 장기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운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TV 드라마 하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IT와 CT 강국으로서의 위상, 한층 더 성숙된 사회의 시민의식, 보다 발전된 경제대국 등 다이나믹한 한국이라는 브랜드 창출은 한류라는 마차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들이다. 계속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끊임없이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면 경쟁력은 상실되고 만다. 다양하고 정말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신선한 한류가 있는 한 한류라는 마차가 지속적으로 굴러가게 마련인 것이다.

### 윈-윈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우리는 다소 조금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현지에서 보면 당연한 일로 보이는 일을 우리 쪽에서는 굉장한 무게를 둔다. 각국마다 자국경제 발전책의 일환인 문화산업 발전과 저마다 처해 있는 사회의 특수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류라는 한국의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 CT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이웃의 오해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

어 한·중간에는 문화산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문화의 유사성과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을 기초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윈-윈 전략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한류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것들을 경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반한류·항한류에 크게 일조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 현지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에 감히 지적하고 싶은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